

發明教室

事例 登 發表

- 사공과 三和技研(株) 金仁錫
 - 사장의 成功事例 發表에
 - 이아 洪載日 理事의 「工業
 - 經濟 發展에 對한 강의가
 - 있었다. 두 發明人의 成功事
 - 例를 간추려 紹介한다.
- (尹榮均 記)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 發明

三和技研(株) 金仁錫 사장

풍부한 산업현장 경험을 지닌 三和技研(株)의 金仁錫사장은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를 發明, 企業化에 성공하였다.

특히, 관련제품을 수출상 품화하기 위해 美國에 5件, 日本에 6件, EC에 2件 등 모두 13件의 국제특허출원을 하기도 했으며, 이에 힘입어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 등 전자응용기기제품을 대량생산하는 우수중견기업체로 그 기틀을 다져가고 있다.

81년 3월에 경기도 부천시 내동에 三和技研을 설립한 金仁錫사장은 전기공학과를 졸업한 엔지니어 출신이다.

기술자가 현장에서 땀을

흘려본 경험이 없다면 그 기술자는 자격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金사장은 충전공에서부터 일을 시작하여 10여년의 풍부한 현장경험을 지닌 완벽한 경험주의 發明人이다.

그가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를 發明하게 된 것은 광산에서 일을 할 때였다.

『광산에서 일을 하다보면 모터가 자주 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모터를 갈아야 하는데 그 교체시간이 너무 길 뿐아니라, 그 수리기간동안은 모든 사람이 하던 일을 중단해야했지요. 그 손실이란 막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없을까 궁리하다가 이 제품을 發明하게 됐습니다.』

金사장은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를 發明한 후, 그것에 만족하지않고 더욱 노력하여 연구개발에 힘썼다.

그 결과, 85년 12월 절전용 냉장고 가동장치인 모터의 과부하차단기도 발명하는데 성공했다.

뿐만아니라,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단상모터와 아크없는 개폐기 등 끊임없이 새로운 발명품들을 고안, 기업화하여 처음 몇명의 종업원으로 시작한 三和技研은 이제 일백여명의 종업원이 일하는 어엿한 중견기업이 되었다.

이렇듯 三和技研이 성장하기 까진 3번의 도산위기가 있었으며, 金사장은 손익분기가 돌아 오기까진 인내하며 노력하는 것이 기업화에 성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